

“정부와 별도로 가계긴급생계비 지원”

광주시, 중위소득 100% 이하 26만 가구 대상 오늘부터 5월8일까지 접수
일반·금융재산 제외하고 세전소득액만 합산...생계유지 힘든 시민 혜택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광주시의 가계긴급생계비 지원대책에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가 정부의 가계긴급생계비 지원대책과 별도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을 지급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1일 광주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3일 발표했던 가계긴급생계비 지원대책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시는 4월1일부터 5월8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준수를 위해 4월1일부터 5일까지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4월6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는 인터넷과 95개 행정복지센터, 광주시청 1층에서 받을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가구 구성원 중 1명이 대표로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만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가 밝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만 합산하고, 일반·금융재산은 제외해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

시는 26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1~2인 가구에는 30만원, 3~4인 가구에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서면 사용 가능한 선불형 상생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긴급생계지원비는 선착순이 아니다”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훈장한 4월 초를 피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 추경 통과를 거쳐 구체적인 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영범 기자

광주시,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33% 감축...권역별 대기오염 총량관리

광주시가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33%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총량으로 관리한다.

시는 4월3일부터 시행될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라 광주 전역이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산업체, 자동차,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배출원에 대해 총량으로 관리하게 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크게 사업장·이동오염원, 생활오염원 3개 분야로 구분해 추진한다.

사업장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할당량을 달성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이를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초과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동오염원의 경우 경유차, 건

설기계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4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80% 이상 퇴출을 목표로 조기폐차 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심 속 공사장 비산먼지, 난방 시설 등 생활오염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친환경 인증된 가정용 보일러만 공급·판매도록 하고,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광주 지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6년 23.6㎍/㎥에서 2024년 24.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는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시행으로 16㎍/㎥까지 배출농도 33%를 감축하는 등 대기오염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맞춤형 대기환경정책을 추진하고, 맑고 깨끗한 공기를 시민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인기

전남도는 지난 3월 공급을 시작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생산 농가와 임산부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국민 참여 예산으로 확보돼 전라남도가 올해 처음 도입한 시범사업으로 순천시, 나주시, 해남군, 장성군, 신안군 등 5개 시군에서 추진 중이다.

시 지역 임산부는 총 비용의 20%인 9만 6천원을 부담하면, 최대 12개월간 총 48만원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택배로 직접 제공 받는 임산부와 판로가 확보된 농가 모두 만족하고

있다.

방울토마토를 납품한 나주 C농가는 “학교급식 납품이 중단돼 걱정이 많았으나 최근 꾸러미용 납품량이 늘어 도움이 되고 있다”며 “어렵게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 꾸러미 공급업체인 농협 호남권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의 나승운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농가와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임산부에게 건강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표혜덕 기자

동구, 4년 연속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공모선정

광주 동구가 2020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공모선정으로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역 소상공인 및 청년들을 위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적정사업을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모 사업이다.

‘충주산업+@지원사업’ 분야에서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자체 최초로 직영 중인 동구청업지원센터의 축적된 데이터와 ▲창업·경영 ▲세무 ▲자금 ▲외식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을 활용한 전담 멘토링과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 청년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구 공직자, 코로나19 극복 성금 모금

광주 서구는 지난 2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은 성금 1,064만 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등 전직원 1,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달된 성금으로 지역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해 관내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코로나 19 꼼짝마” 남구청사 내 항균 필름 부착

광주 남구는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남구청사 내 모든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 손잡이와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구리가 함유된 항균 필름을 부착했다.

항균 필름이 부착된 곳은 남구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1~8호기 내외부 버튼을 비롯해 청사 방문시 민원인들이 즐겨 찾는 1층과 사무실이 소재한 5~9층 출입문 손잡이 전체이다.

북구, 소상공인 1:1 맞춤형 컨설팅

광주 북구는 4월부터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총 100개 업체를 모집해 지원할 예정으로 10여명의 분야별 전문컨설턴트가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은 △상권·입지분석 △사업성분석 △경영진단 △홍보·마케팅 △점포운영 △프랜차이즈 △고객서비스 △세무·회계 △인테리어·익스테리어 9개 분야로 이뤄진다.

광산구, 안심식당 운동 전개

광주 광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광산 안심식당 운동’을 전개한다.

이 운동은 구민들이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을 위해 일반음식점 영업주가 스스로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실천하는 내용이다.

영업주는 영업장 매일 소독, 전 직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영업장 내 손소독제 상시 비치, 개인접시 제공 등을 실천하고 일일점검표 작성을 통해 이를 매일 점검한다.

운동에 참여를 원하는 업주는 4월 3일까지 서약서를 작성해 광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광산구는 접수한 업소 영업장 입구에 안심식당 스티커를 붙이고, 관련 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임향택 기자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h-well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